칠레, 유기식품 미국·아시아 수출기회 확대

현재 미국에서는 ‘1일 5색’(Five a day the color way)를 슬로건으로 한 정부의 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으로 인하여 건강한 식품의 소비를 장려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슬로건은 여러 식품이 지닌 특징을 식품의 색깔별로 지정한 것으로 1일 5~9종류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예를 들면 토마토나 딸기의 빨강은 비뇨기계통의 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에 관한 수치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캠페인의 장기적인 목표는 새로운 식품소비패턴의 개발과 장려이다. 새로운 소비패턴은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학교나 식품표시 등에서 장려된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 캠페인에 의하면 건강한 음식인 과일이나 채소 소비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유기식품의 소비량이 연간 20%의 비율로 증대한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일반식품 소비량의 성장률은 연간 3%에 그치고 있다.

현재 미국 국민들 사이에는 건강한 식품의 소비량이 착실하게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살충제,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노후건강을 생각하는 노령자들 사이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칠레 유기식품생산자조합(Aaoch)에 의하면, 현재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유기식품 총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유기식품 시장이다.

현재 미국 소비시장에서 유기식품의 대상 총액은 1억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시장 성장률은 9% 전후로 안정되어 있어 2010년의 매출 총액은 2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시장의 성장은 칠레의 유기식품 생산자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칠레의 과거 4년간 유기식품 생산량은 연간 100%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제품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칠레의 생산자는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미국시장에 신선과일·채소를 수출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정통하다는 장점도 있다. 때문에 유기농산물 시장에 진출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선농산물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유기식품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장에 많은 제약은 안고 있어 남반구에서의 수출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편 칠레산 유기농산물의 유망한 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에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이 지역들의 유기식품 소비량은 미국과 비슷한 성장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칠레는 중국과 FTA체결 교섭을 개시하고 있다. 중국에는 2억 명에 달하는 고소득자 계층이 존재하고 있어 소비성향이 급속하게 세련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 유기식품에 대한 수요는 연간 10%를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일본시장에서도 유기식품이나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는 착실하게 증대하고 있으며 한국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http://www.maff.go.jp>에서

(신용광 ykshin22@krei.re.kr 02-3299-43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